

▶ 전체

▶ [2010 우리 대학을 빛낸 10대 뉴스]

번호

4

작성자

대외협력팀

등록일

2010.12.24

조회

2294

2010 SKKU 10대뉴스



2010 학교를 빛낸 10대 뉴스

- 1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 2 삼성창원병원 본격 출범
- 3 첨단 소프트웨어학과 탄생
- 4 '연구중심대학' SCI급 논문 주목
- 5 Global SKKU/ISS · 영문레터 · 복수학위
- 6 '스포츠탈 1년' 전종목 석권
- 7 종합대 품질지수 1위...NCSI 4년째 정상
- 8 탁본으로 빛난 박물관 기획전
- 9 '유학사상국제회의' 개최
- 10 서정돈총장 퇴임 · 김준영총장 취임



1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에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수도권 대규모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4년 동안 연 30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받는다. 우리 대학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무처를 중심으로 7개 영역 54개 선진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대학교육 구현을 위한 핵심 엔진이 될 3개 센터를 지난 9월 동시 출범시켰다. 리더십

합양을 위한 '수기치인 리더십센터', 창의력 제고를 위한 '다산 창의력센터', 대학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대학교육효과성센터'가 그것. 이로써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트로이카체제가 공식 발전하게 되었다.

2 삼성창원병원 본격 출범

우리 대학의 숙원인 부속병원이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병원장 김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7월15일 공식 출범했다. 1981년 마산고려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30여년간 지역 의료복지 향상에 노력해온 삼성창원병원이 마산삼성병원시대를 거쳐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에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재탄생, 통합 창원시의 첫 대학병원으로 출범하게 된 것. 신관 증축, 대형건물 신축, 우수 의료진 유치와 각종 최신 장비 도입, 삼성의료원 산하 삼성서울병원 및 강북삼성병원과의 협력체제 강화 등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첨단 소프트웨어학과 탄생



우리 대학은 2011학년도부터 정보통신공학부에 정원 30명의 '소프트웨어학과' (일명 소프트웨어 사관학교)를 신설, 신입생을 받아들였다. 소프트웨어학과는 신입생들에게 4년 동안 장학금 전액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며 기숙사를 우선 제공하며 고교 최상위권 학생들을 뽑는다. 수시 1차에서 자기추천자전형 2명, 과학인재 특기자전형 6명 등을 선발하고, 수시 2차에서 일반전형 12명, 나머지 10명은 정시모집한다. 우리 대학은 학부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과 석박사과정 휴대폰학과에 이어 소프트웨어학과가 신설돼 'IT 트라이앵글체제'를 구축, 연구중심대학의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인 이 학과는 KAIST 교수 4명을 영입하고 초일류기업의 전문가들을 교수로 채용할 예정이다.

4 '연구중심대학' SCI급 논문 주독

최근 언론평가에 따르면, 우리 대학 물리학전공 교수들의 1인 SCI급 논문 수가 2.8편으로 전국 대학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듯이, 학부생들의 연구력도 향상을 거듭해 국제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안종현교수 지도 아래 이승기·장호욱학우의 '플렉서블 실리콘 전자소자 개발' 관련 논문이 국제 저명한 응용물리학회지 표지를 장식했다.



한편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의 대면적 생산기술을 개발한 홍병희교수가 제1회 '홍진기 창조인상' 과학부문 수상을 했다. 그의 논문은 '사이언스' 표지와 '네이처' 지에 실리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과학한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SAINT(성균나노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 3인의 논문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표지를 장식했다.



5 Global SKKU/ISS • 영문레터 • 복수학위



국제하계학교(ISS • International Semester School)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Recovery and Prosperity: Post Crisis and New Future' 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8일부터 4주동안 진행된 제3회 ISS는 50개국 100여개 대학 400여명의 대학생이 국제석학 13명의 특강을 들었다.

한편 글로벌경영학과에 이어 글로벌경제학과도 미국 인디애나대, 영국 버밍엄대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는 등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탄생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한 영문 뉴스레터 'Global SKKU'를 지난 9월 최초로 발간하여 세계 각 기관 20만여명의 교육관계자들에게 릴리스함으로써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시대를 열었다.

6 '스포츠탄 1년' 전종목 석권



우리 대학 스포츠탄(단장 윤승호교수)이 지난해 9월 부속기관 명칭을 '체육실'에서 '스포츠탄'으로 바꾼 이후 1년 만에 "전종목 우승"이라는 거를 이뤘다. 이로써 우리 대학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동문 결속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종목은 야구와 배구, 축구부가 KBO총재기 전국대회, 삼성화재배 전국대회, 추계대학연맹전에서 각각 우승했으며, 농구부가 전국남녀중별대회에서, 핸드볼부가 전국최강전에서 정상에 등극했다. 개인종목은 육상부 이우용, 김광열선수 등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으며, 탁구부는 지난해에 이어 문체부 전국남녀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검도부 역시 조진웅선수가 전국대회 개인전을 휩쓸었고, 태권도부가 협회장기 단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다. 골프부문은 장수화선수가 하이트립 챔피언십에서 우승 촉배를 들어 '스포츠탄에도 강한 대학'의 명성을 떨쳤다.

7 종합대 품질지수 1위...NCSI 4년연속 정상



우리 대학이 '2010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 종합대학 교육행정서비스부문 1위로 선정됐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인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국내 주요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신뢰성 △친절성 △적극성 △용이성 △시설·환경 △부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한편 우리 대학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전국 사립대학교 부문에서도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학생들의 불만족 사항을 과학적으로 측정, 분석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6 시그마 기법을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평가됐다.

8 탁본으로 빛난 박물관 기획전

우리 대학 박물관은 올해 두 번의 '탁본 기획전'으로 학교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전시되고 있는 '탁본으로 보는 한국문양'전은 서산 마애삼존불 실물탁본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학계와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우리 대학 조동원 명예교수가 40여년 동안 제작한 금석문 450점을 기증함으로써 이뤄진 이 기획전은 성덕대왕신종 탁본 문양 등 70여점을 선별, 문화재의 선각(線刻)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개최된 '조선전기 신도비전'에서도 조선 초기 국왕 신도비(神道碑) 4종과 이을곡, 조광조 등의 신도비 탁본 30여점이 처음 공개됐다.



9 유학·동양학의 '종가'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제유학연합회 이사장인 서정돈총장이 주최한 '유학사상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대학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유학부흥과 현대사회'라는 대주제 아래 10개 분과별로 열린 학술회의는 국제석학 40여명이 초청돼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왜 다시 유학인가'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화두인 시점에서 이 학술회의는 초청학자 인터뷰, 국제석학 좌담 등 언론의 관심도 컸다. 한편 국내 유력 주간지는 지난 3월 '공자 DNA를 찾아라'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24 쪽에 걸쳐 유학·동양학의 '종가'인 우리 대학의 교수칼럼과 CEO들이 유학대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



10 서정돈총장 퇴임 · 김준영총장 취임



1996년 우리 대학 의과대학의 산파역이자 의과대학 학장으로 6년 동안 재직한 서정돈 총장은 2003년 2월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마스터플랜 'VISION 2010+'를 재수립, 목표 달성에 매진했다. 2007년 재선임되어 총장으로 일한 8년 동안 UI 제정, 법학관 · 국제관 · 삼성도서관 · 자과캠 기숙사 완공, 호암관 리모델링 및 증축 등 시설인프라 구축, BK21사업단 28개 100% 선정, 사학영문 BIG 3 안착, SCI논문 2천편 돌파 등 업적을 쌓음으로써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제 그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김준영 부총장(2011년

1월 18일 취임)에게 학교 발전의 baton을 넘기게 됐다. 김총장 선임자는 명저 '거시경제학'을 저술한 학계의 독보적인 학자이자 대학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대외협력처장 겸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으로 헌신했으며 'VISION 2020'를 수립 천명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으로 학교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부파일 | (0Kbyte)

다음글

이전글 2010년 과학기술 10대 뉴스 선정, 그래핀 1위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 이전

다음 »

목록 >

수정 >

삭제 >

글쓰기 >

상기 콘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TEL)

프린트